2026.02.12.

Request for Comment: 일반기업 신용평가방법론 신규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의견 요청

유준기 평가기준실 전문위원
02.368.5315
yoojk@korearatings.com

김동혁 평가기준실 전문위원
02.368.5533
kimdh@korearatings.com

김경무 평가기준실 실장
02.368.5524
kmkim@korearatings.com

한국기업평가㈜(이하 'KR')는 일반기업 신용평가방법론(이하 '평가방법론') 신규 제정안 및 개정안') 개정안에 대하여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요청합니다.

KR은 작성된 평가방법론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년 단위로 평가방법론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장 및 규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평가방법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경이 필요한 주요 사항 발생시 수시 검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KR의 평가방법론은 KR의 신용등급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 결정되고 제시되는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평가방법론의 작성 및 개정은 적절하게 통제된 경로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KR은 평가방법론의 객관성·투명성·일관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심의 및 검수 과정을 거쳐 확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가방법론을 신규 작성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요소 등과 관련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의견 제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KR은 2026년 3월 11일까지 1개월간 이메일(policy@korearatings.com), 홈페이지 의견등록 등을 통해 평가방법론 개정안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의견 제안 시 소속기관, 성함 및 연락처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KR은 Feedback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된 내용과 신규 제정안 및 개정안 반영 여부, 수정 사항 등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신규 제정 및 최종 개정되는 평가방법론은 공시 시점부터 유효합니다.

금번에 제정 및 개정되는 일반기업 평가방법론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 제정 대상: 방산업**

- **개정 대상: 호텔업, 항공운송업, 조선업**

- 주요 제정 및 개정 내용:
  - 방산업 평가방법론: 국내외 방산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방산업 고유의 사업 및 재무위험을 반영한 방산업 평가방법론을 신규 제정하였습니다. 사업항목 평가요소는 기업규모, 무기체계 및 사업다각화, 납품 레코드 및 시장지위, 수주잔고의 양과 질, 제품경쟁력 및 공정관리능력, 수요기반 안정성의 6개 항목으로, 재무항목 평가요소는 EBITDA마진, 조정순차입금/EBITDA, EBITDA/금융비용, 조정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재무정책과 융통성의 6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와 연계되어 보수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 특성과 더불어, 수주형 제조업의 대금수취구조 특성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 호텔업 평가방법론: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객단가 상승 영향을 감안하여 순수호텔 매출규모 구간값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호텔사업의 확장성과 복합화 추세를 감안하여 사업경쟁력 세부항목 중 호텔 보유기준을 상향 조정하였고, 호텔업 내 비중이 제한적이고 사업자별 사업구조에 차이가 큰 점을 감안하여, 리조트·테마파크·임대업 등 기타사업을 사업경쟁력 세부항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항공운송업 평가방법론: 사업 및 재무항목 평가요소별 등급 상한을 AAA로 변경하였습니다. 팬데믹 종료 이후 항공시장 전반의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수익구조가 안정화되는 등 산업위험이 경감됨에 따라 항공운송업계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방법론 상의 제약요인을 정상화한 것입니다. 재무항목 중 EBITDA/금융비용 지표의 전체 구간값을 Corporate(서비스) 평가방법론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항공시장의 벤치마크 조달금리의 초저금리 기조가 종료됨에 따라 과거 초저금리 기간 동안 엄격히 운용해왔던 지표를 정상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 조선업 평가방법론: 사업 및 재무항목 평가요소별 등급 상한을 AAA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공급과잉 위험이 완화되고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의 교체 수요가 확대되면서 산업위험이 경감됨에 따라 조선업계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방법론 상의 제약요인을 정상화한 것입니다. 재무항목 평가요소는 레버리지 항목을 조정부채비율 지표로 단일화하고, 차입금 커버리지 지표는 선수금을 고려한 조정지표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금융비용 커버리지 지표를 추가하는 한편, 설명력이 약화된 현금유동성 지표는 삭제하였습니다.

- 제정 및 개정된 방법론이 적용되더라도 기존에 부여된 신용등급이 즉각적으로 변경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한국기업평가㈜(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분석 시점에서의 당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제반 연구자료(이하 '간행물')는 상기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당사 또는 필자 개인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의견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의 미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예측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신용등급 산출 및 간행물 발간(이하 '신용평가업무 등')에 이용되는 모든 정보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3자 요청 신용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산출 시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의 오류 및 사기, 허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당사는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분석자•분석도구 또는 기타요인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신용등급 및 간행물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당사 간행물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평가업무 등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사 신용등급 및 간행물 상의 정보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당사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혹은 보유를 권유하는 정보가 아니며 시장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도 아닙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그 내용으로 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금융상품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스스로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각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시장 전문기관을 일차적인 이용대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에 의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개인투자자 스스로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되지 않은 신용등급이나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평가 요청인 이외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믿고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5)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사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Copyright 2026, Korea Rating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대표전화: 368-5500 FAX: 368-5353.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국기업평가㈜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도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배포될 수 없습니다.